

김치산업의 동향과 시사점¹⁾

박기환, 전무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2018년 2월부터 식품산업 동향 및 정보 분석결과를 매월 이메일을 통해 ‘식품외식정보 웹진’으로 배포하고 있음.

식품외식정보 웹진 6호에서는 국내 김치산업의 위상, 고용, 경영실적 등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김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정리하여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김치류 제조업 개요

김치류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2016년 860개에서 2019년 1,248개, 2020년 1,703개로 증가하였으며,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체하다가 2022년 1,741개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김치류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 식료품제조업의 2% 내외 수준이나,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대비로는 1/5 이상을 점유함.

- 그러나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13.8%)이 김치류 제조업(12.5%)보다 더 커 비중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임.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및 식료품제조업 대비 비중

단위: 개, 명, %

구분		2016	2019	2020	2021	2022
사업체 수	식료품제조업(A)	57,734	60,715	70,089	71,982	72,453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B)	3,620	4,780	7,323	7,609	7,844
	김치류 제조업(C)	860	1,248	1,703	1,703	1,741
	C/A	1.5	2.1	2.4	2.4	2.4
	B/A	23.8	26.1	23.3	22.4	22.2
종사자 수	식료품제조업(D)	324,392	353,949	370,629	374,128	378,036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E)	26,745	31,416	35,686	36,255	37,448
	김치류 제조업(F)	9,415	10,336	10,802	10,510	10,714
	D/F	2.9	2.9	2.9	2.8	2.8
	E/F	35.2	32.9	30.3	29.0	28.6
	업체 당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7.4	6.6	4.9	4.8
		김치류 제조업	10.9	8.3	6.3	6.2

주: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1만 714명이며, 식료품 제조업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 수준임.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대비 비중은 2016년 35.2%에서 2022년 28.6%로 6.6%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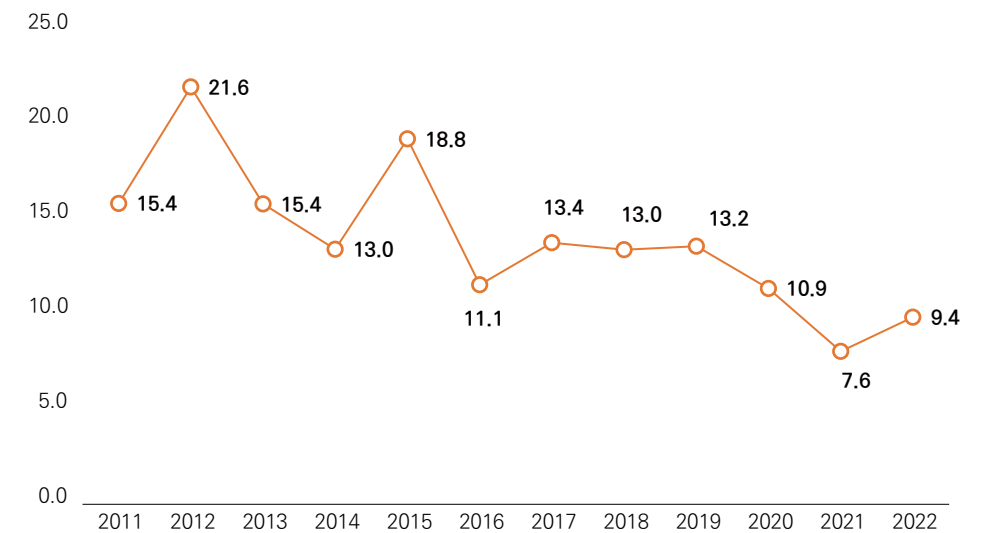
-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김치류 제조업은 2.2%에 그친 반면,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5.8%로 더 높은 것에 기인함.

김치류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김치류 제조업은 2016년 10.9명, 2022년 6.2명으로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7.4명, 4.8명에 비해 많음. 이처럼 김치류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것은 김치의 경우 식재료 손질, 절임, 양념혼합, 포장 등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 자동화 수준(2022년 5점 척도 기준)은 절임이 1.77점, 속 넣기 1.37점, 포장 1.61점²⁾ 등으로 낮아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김치류 제조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동률은 13%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10% 미만까지 떨어졌음. 전반적으로 김치류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낮은 것은 연간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대규모 업체가 있는 반면, 상당수의 업체는 김장철 등 수요가 많은 시기에만 김치를 제조하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김치 제조업체의 가동률 추이

단위: 개, 명, %



주: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각 연도.

2) 김치업체의 김치 제조공정별 시설·설비 자동화 수준은 전 공정에서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포기김치의 속 넣기 공정이 1.37점으로 다른 공정 대비 자동화 수준이 가장 낮음(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년(‘22년 기준) 김치산업 실태조사」, 2023.)

1) 김치산업 현황은 주로 통계청의 공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김치류 제조업의 고용 현황

■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1~4명이 2022년 기준 73.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명 이하 사업체의 점유율이 과거 50%에서 60%대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70%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영세한 업체의 진입으로 인해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실정임.

- 반면, 5~9명의 비중은 10%대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10~19명, 20명 이상의 사업체 수 비중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종사자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이 12.5%인데, 1~4명은 18.7%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반해, 5~9명은 2.7%, 10~19명 3.8%, 50~99명 3.5%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100~229명은 오히려 12.6%의 감소율을 나타냄.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4명	457 (53.1)	558 (57.5)	705 (61.3)	802 (64.3)	1,250 (73.4)	1,263 (74.2)	1,281 (73.6)
5~9명	172 (20.0)	173 (17.8)	211 (18.3)	209 (16.7)	218 (12.8)	185 (10.9)	202 (11.6)
10~19명	107 (12.4)	122 (12.6)	108 (9.4)	113 (9.1)	116 (6.8)	135 (7.9)	134 (7.7)
20~49명	93 (10.8)	85 (8.8)	94 (8.2)	90 (7.2)	86 (5.0)	91 (5.3)	93 (5.3)
50명~99명	22 (2.6)	23 (2.4)	25 (2.2)	29 (2.3)	25 (1.5)	25 (1.5)	27 (1.6)
100~229명	9 (1.0)	9 (0.9)	7 (0.6)	5 (0.4)	8 (0.5)	4 (0.2)	4 (0.2)
계	860 (100.0)	970 (100.0)	1,150 (100.0)	1,248 (100.0)	1,703 (100.0)	1,703 (100.0)	1,741 (100.0)

주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2)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여자가 대략 2/3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치의 양념혼합이나 숙냉기 등의 과정에 여성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의 성별 구성은 2022년 기준 남자의 비중이 52.4%로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김치류 제조업과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33.4	33.3	33.0	36.0	33.8	33.5	35.8
여	66.6	66.7	67.0	64.0	66.2	66.5	6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2)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는 상용종사자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³⁾, 이어서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김치 제조업체는 상당수의 종사자를 정규직 등으로 고용하고 있음.

- 그러나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어 가족 중심의 소규모 업체가 늘어나 종사자 4명 미만의 사업체 비중 증가와 가동률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816 (8.7)	937 (9.9)	1,126 (11.1)	1,212 (11.7)	1,728 (16.0)	1,630 (15.5)	1,728 (16.0)
상용종사자	7,382 (78.4)	7,430 (78.7)	7,980 (78.5)	7,908 (76.5)	7,914 (73.6)	7,790 (74.1)	7,914 (73.3)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02 (12.8)	1,066 (11.3)	1,046 (10.3)	1,177 (11.4)	1,120 (10.4)	1,035 (9.8)	1,120 (10.4)
기타 종사자	15 (0.2)	12 (0.1)	19 (0.1)	39 (0.4)	40 (0.4)	55 (0.5)	40 (0.4)
계	9,415 (100.0)	9,445 (100.0)	10,171 (100.0)	10,336 (100.0)	10,802 (100.0)	10,510 (100.0)	10,802 (100.0)

주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2)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당 연간급여는 2016년 2,100만 원에서 2022년 2,830만 원으로 연평균 5.3%의 상승률을 나타냄. 이중 상용종사자의 연간급여는 연평균

6.0% 상승하여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3.5% 상승률에 그치고 있음.

-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당 연간급여는 식료품 제조업 전체 평균의 70% 내외 수준이지만, 이 중에서 상용종사자는 최근 80% 이상까지 근접해 가고 있음.
- 연간급여의 연평균 상승률은 식료품 제조업이 평균 4.8%, 상용종사자는 4.7%로 분석되어 김치류 제조업의 급여 상승 폭이 더욱 커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당 연간급여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당 연간급여	28.9	30.1	31.1	33.3	35.6	36.6	38.7
	상용종사자	31.9	33.4	34.1	36.8	38.5	39.7	42.0
	임시 및 일용근로자	14.8	16.0	16.3	17.1	19.0	17.9	20.3
김치류 제조업	종사자당 연간급여	20.7	22.1	22.6	23.9	26.8	28.7	28.3
	상용종사자	23.5	25.4	26.9	29.3	30.9	32.6	33.4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9	14.2	15.6	14.5	15.4	17.2	17.0

주 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2) 2019년까지는 조사기반, 2020년부터는 등록기반 기준임.

3)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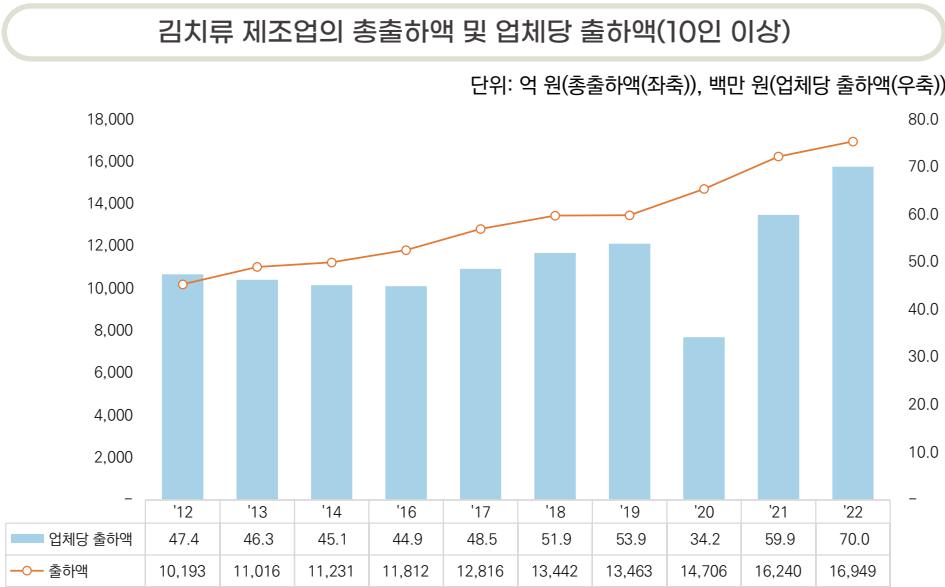
김치류 제조업의 경영 실적 현황

■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의 출하액은 2012년 1조 193억 원에서 2022년 1조 6,949억 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여 시판용 상품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⁴⁾ 그러나 업체당 출하액은 당해연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가 변화하여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총출하액 증가 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총출하액은 증가했지만, 업체당 출하액은 큰 폭으로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원재료 상승으로 단가가 올라 업체당 출하액은 역대 가장 높은 7천만 원으로 형성됨.

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22년 기준) 김치산업 실태조사」, 2023에 의하면, 김치 제조업체의 판매액은 2020년 1조 7,462억 원, 2022년 1조 9,411억 원으로 집계됨. 통계청은 10인 이상의 김치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식품부의 김치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음.

3)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도 종사상 지위 중, 상용종사자 비중이 70.8%(2022년 기준)로 가장 높아 김치류 제조업과 차이는 없음.



주 1) 10명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임.
2)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의 출하액 분포를 살펴보면, 출하액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은 2016년 11.0%에서 2022년 7.0%로 감소한 데 비해, 100억 원 이상은 같은 기간 9.7%에서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중이 가장 높은 출하액 10억~50억 원의 경우 2016년 64.4%에서 2022년 56.2%로 줄었지만,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50억~100억 원은 14.8%에서 21.1%로 늘었음.
 - 결국,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체의 업체당 출하액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규모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임.

김치류 제조업의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 비중 추이(10인 이상)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억 원 미만	2.1	3.3	2.1	1.7	3.4	3.2	1.7
5억~10억 원 미만	8.9	9.6	7.2	4.8	6.0	3.6	5.4
10억~50억 원 미만	64.4	59.4	60.9	61.6	55.4	59.3	56.2
50억~100억 원 미만	14.8	15.9	19.1	20.1	21.0	21.0	21.1
100억~300억 원 미만	8.9	10.5	9.4	10.0	12.0	11.7	13.6
300억~400억 원 미만	-	0.4	-	0.4	0.9	0.4	0.8
400억~1,000억 원 미만	0.8	0.8	0.9	0.9	0.9	-	0.4
1,000억~5,000억 원 이상	-	-	0.4	0.4	0.4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 출하액은 2016년 1조 1,751억 원에서 2022년 1조 6,917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였지만, 총비용도 같은 기간 1조 539억 원에서 1조 6,850억 원으로 늘어 8.1%의 증가율을 나타내 출하액 증가 폭을 웃돌고 있음.
- 총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9.2%에서 2022년 55.6%로 다소 떨어졌지만, 과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원재료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7.0%로 출하액 증가율보다 높음.
 -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2016년 1,212억 원에서 2019년 1,167억 원으로 줄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240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2021년은 1,19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내 회복되었다가, 2022년 다시 67억 원으로 다시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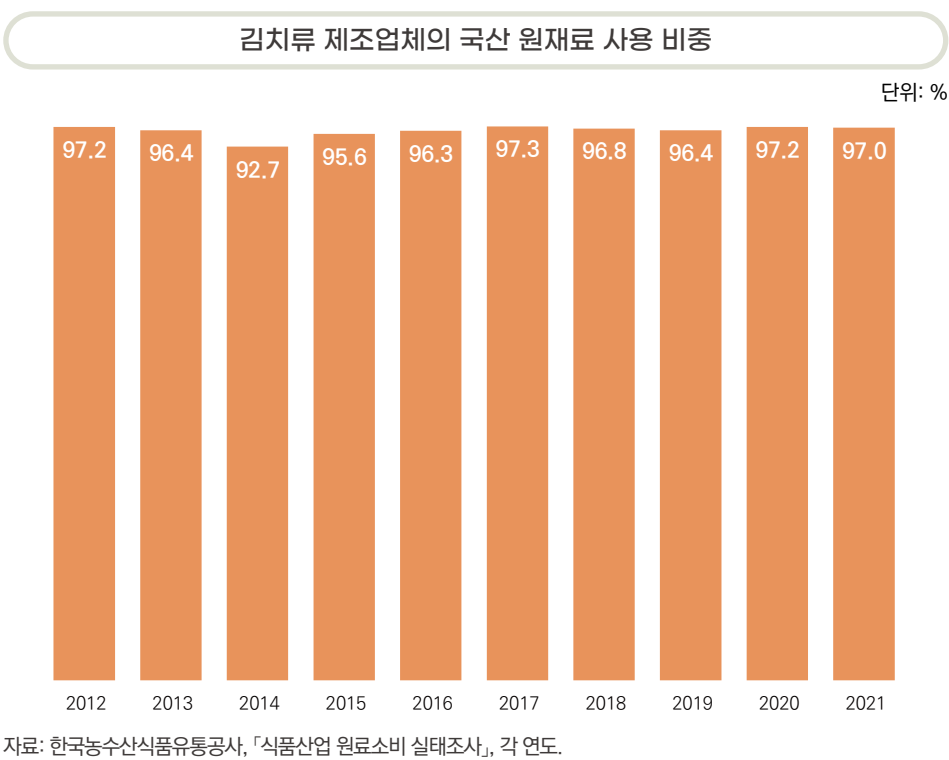
■ 한편,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의 업체당 출하액은 2016년 50억 원에서 2022년 70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8%이며, 업체당 비용은 같은 기간 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7.7%씩 증가함.

김치류 제조업의 경영 현황 추이(10인 이상)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9	2020	2021	2022
전체	출하액	1,175,109	1,345,997	1,464,995	1,618,674	1,691,678
	총비용	1,053,906	1,229,308	1,440,982	1,498,903	1,684,959
	원재료비	624,238 (59.2)	731,220 (59.5)	833,026 (57.8)	862,976 (57.6)	936,750 (55.6)
	영업이익	121,203	116,689	24,013	119,771	6,719
업체당	출하액	4,979	5,878	6,288	6,527	6,990
	비용	4,466	5,368	6,184	6,044	6,963
	원재료비	2,645 (59.2)	3,193 (59.5)	3,575 (57.8)	3,480 (57.6)	3,871 (55.6)
	영업이익	514	510	103	483	28
이익률		10.3	8.7	1.6	7.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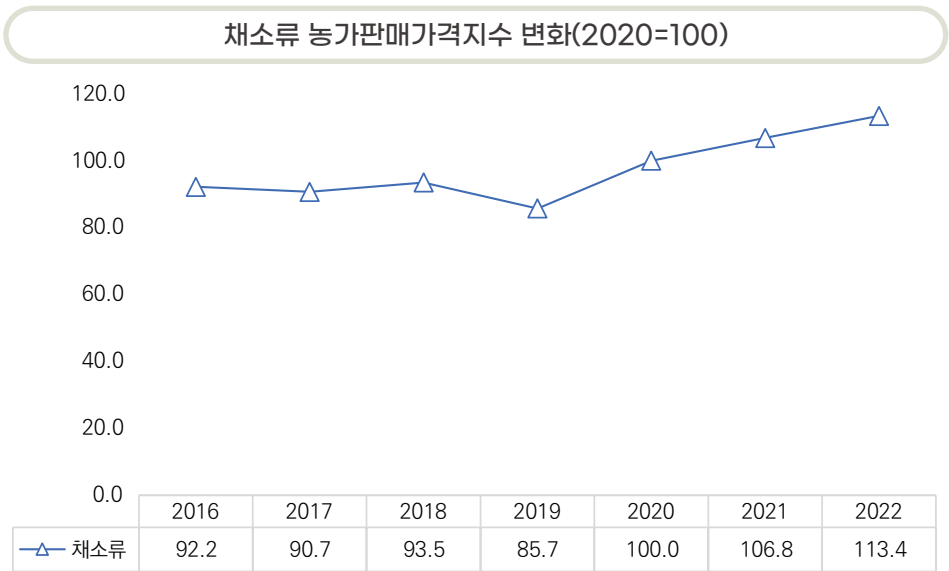
주 1) 영업이익은 출하액에서 총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함.
2) 이익률은 출하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임.
3) () 내는 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4) 업체당 출하액, 비용, 원재료비, 영업이익은 전체를 사업체 수로 나누어 산정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이처럼 김치류 제조업은 출하액보다 비용 상승 폭이 더욱 커 영업이익률은 2016년 10.3%에서 2021년 7.4%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특히, 2022년의 경우 출하액은 전년보다 7.1% 증가하였지만, 원재료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15.2%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이익률은 0.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 김치의 원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천일염 등 거의 대부분 신선 농수산물인데, 이들 원재료의 국산 사용률이 95% 내외로 매우 높아 농업부문과의 연계성이 어떤 식품보다 강함. 그렇지만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김치 제조업체의 영업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김치의 핵심 원재료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채소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6년 92.2에서 2021년 106.8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113.4로 더욱 올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됨.



최근 김치산업 관련 환경변화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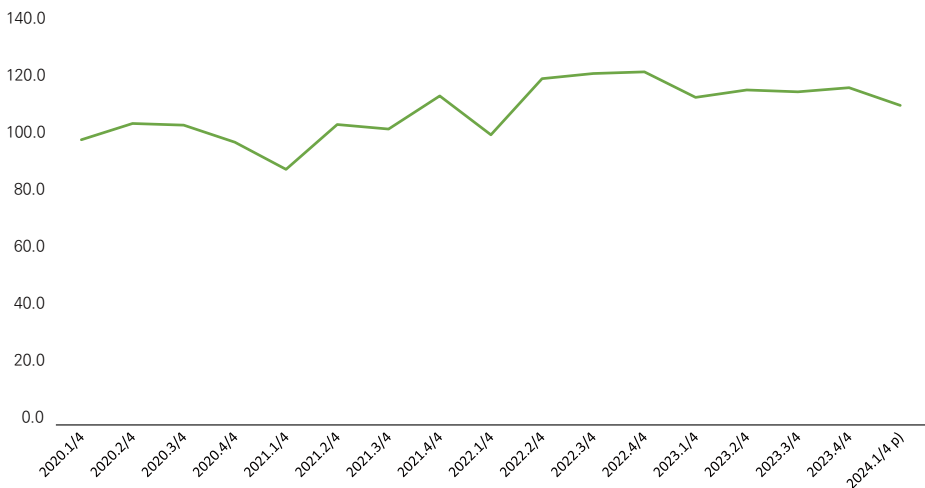
김치의 1인 1일 섭취량은 서구화 경향의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2010년 109.9g에서 2021년 87.0g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⁵⁾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선호로 김치를 구입하여 섭취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⁶⁾

- 이로 인해 김치류 제조업 출하액(10인 이상)은 2012년 1조 193억 원에서 2022년 1조 6,949억 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는 등(그림 2 참조) 상품김치의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신장하고 있음.

여기에 상품김치의 주요 수요처 중의 하나인 외식업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기간 침체되었다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생산활동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어 상품김치 시장규모 확대를 더욱 견인하고 있음.

- 음식점업의 생산지수(2020=100)는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1년 3/4분기까지 하향세를 나타냈지만, 2021년 4/4분기부터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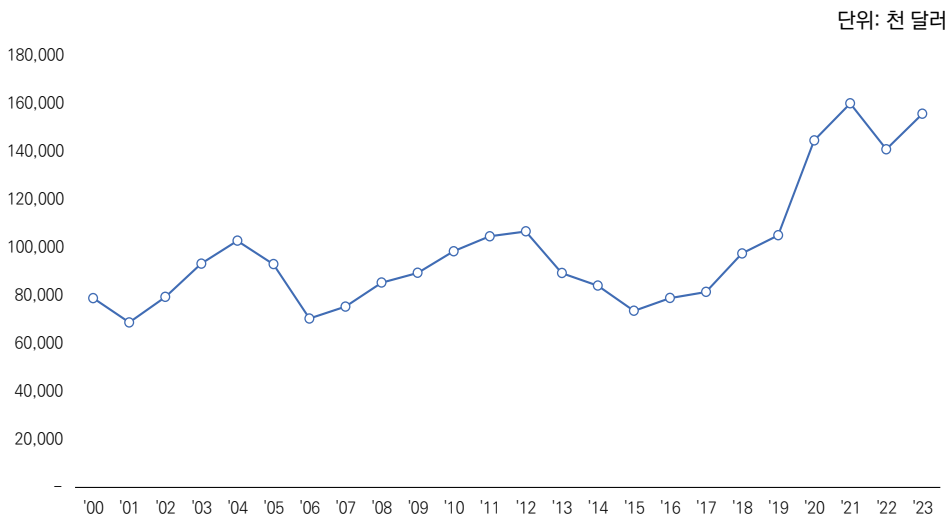
음식점업의 분기별 생산지수(2020=100)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https://kosis.kr/>).

김치 수출액은 2012년 1억 700만 달러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5년 7,400만 달러까지 줄었음.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김치의 면역력 강화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김치 수출액은 2020년 1억 4,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023년 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김치산업의 수출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김치의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013년)된 지 10여 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2020년)하였음.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선포하는 등 김치산업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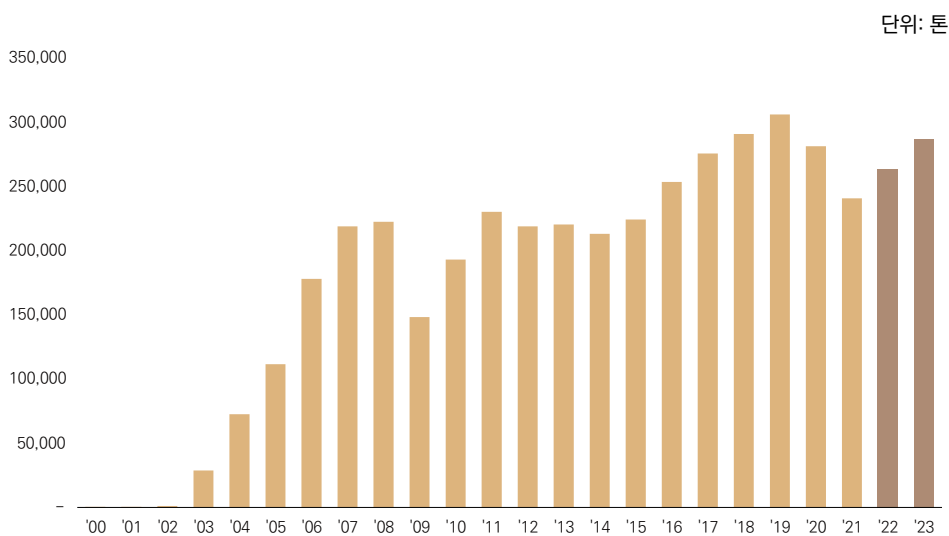
- 미국은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뉴저지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미시간주와 메릴랜드주, 조지아주, 텍사스주, 페어팩스카운티, 풀러턴시에서는 김치의 날을 선포한 바 있음.
- 브라질 상파울로시 이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치의 날이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영국의 런던 킹스톤어폰템스 왕립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공식 제정하였음.

이처럼 김치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상품김치 중심의 시장규모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향후에도 김치산업의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류 제조업은 종사자 수 4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영세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업체당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춤하였던 김치 수입량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3년 28만 7천 톤에 달하고 있어 국내 김치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

김치의 수입량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따라서 김치산업은 상품김치 시장규모의 신장하게 부응하여 규모화를 추구하고, 제조공정의 자동화 도입과 국산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도모는 물론, 맛과 품질, 안전성 강화로 수입김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근 김치산업을 둘러싼 긍정적 기류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저자 정보

- 박기환 선임연구위원(061-820-2331), kihwan@krei.re.kr
- 전무경 연구원(061-820-2175), mu3618@krei.re.kr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영양통계」(<https://www.khidi.or.kr/nutristat/>)에서 김치의 종류별로 합산한 수치임.

6) 소비자 가구의 김치 조달 방법 중에서 '상품김치 구입'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2년 30.6%로 크게 확대됨(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22년 기준) 김치산업 실태조사」, 2023).